



중앙아시아 금융 산업 진출 전략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금융산업의 현황과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업종별 유효한 진출 전략을 제시합니다.

May 2026



Table of contents

들어가며	03
왜 중앙아시아인가?	04
주요국의 거시 환경	07
주요국의 금융업 특성과 사업 기회	15
국내 금융사의 진출 전략	20
나가며	27

들어가며

중앙아시아 금융 시장은 과거의 국가 주도 금융 구조에서 민간 참여와 시장 기반 금융이 확장되는 전환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 기반 외화 유입과 자국 내 자산 축적이 가계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면서, 소매 금융부터 기업 금융, 보험 및 자본시장 영역까지 수요의 외연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금융 규제 고도화와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 금융 생태계의 질적 개선을 추진 중이며, 우즈베키스탄은 금융 개혁과 민영화를 병행하며 외국계 금융기관의 참여 공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각 금융 업종별 시장 기회와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진출 전략을 제시합니다.



왜 중앙아시아인가?

중앙아시아가 가진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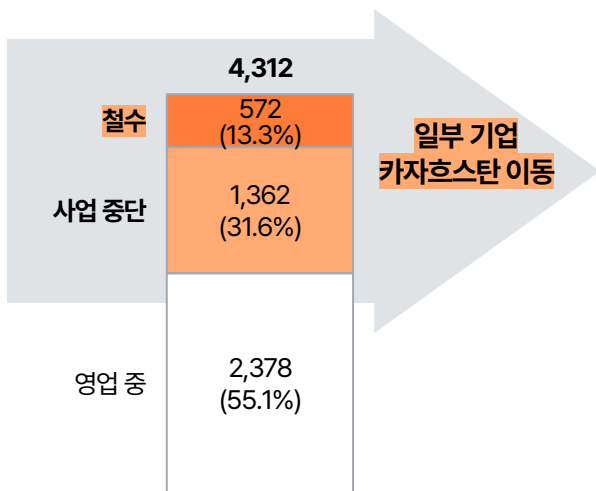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결합하며 외부 자본의 진입과 축적이 빠르게 진행 중인 신흥 투자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유럽-중국-중동을 연결하는 축에 위치해 물류·에너지·인프라 측면에서 '유라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글로벌 지역 중 드물게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고성장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평균연령이 20대에 집중되어 있어 노동력·내수·소비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지정학: 유라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

중앙아시아는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경로에 위치해 있으며, 러·우 전쟁 이후 유라시아의 새로운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약 45%가 철수 또는 사업 축소를 결정했으며, 그 중 상당수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핵심 국가로 사업 기반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재 다국적 기업의 카자흐스탄 이전 동향

러시아 내 다국적 기업 영업 현황
(2025년 기준, 단위: 개)



러시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한 주요 글로벌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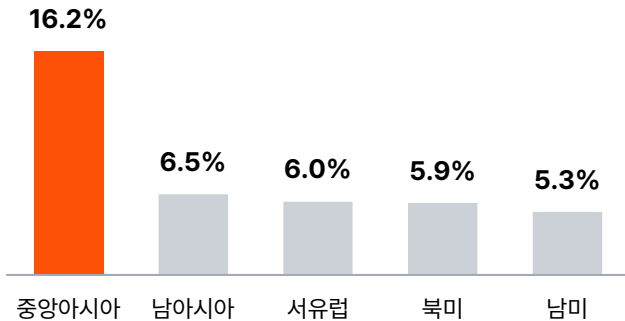
기업명	사업	카자흐스탄 투자·진출
Knauf	건축자재 생산	카작 내 제조공장 건설
Emerson	산업장비 제조	카작 내 제조공장 건설
inDrive	차량호출서비스	러 지역사무소 카작 이전
Honeywell	자동화기기 생산	카작 내 지역 사무소 개소
Clariant	화학제품 생산	카작 내 지역사무소 개소
Weir Minerals	산업장비 제조	카작 내 제조공장 건설
Tiktok	소셜미디어	카작 내 지역사무소 개설
Air Liquide	에너지 생산	카작 내 공장 증설
Alstom	철도인프라 제조	카작 내 서비스센터 설립

출처: Kazakhstan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KOTRA, KSE Institute, PwC Analysis

경제: 세계에서 유일한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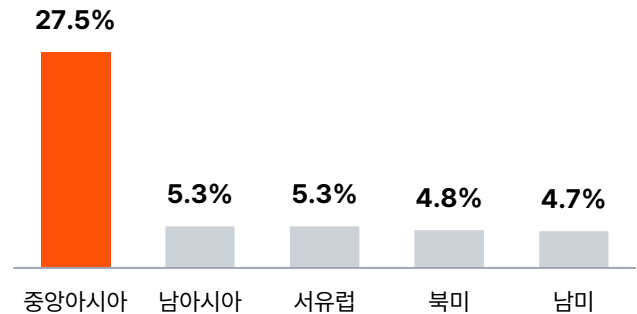
중아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약 16%로, 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등 대부분 지역의 한 자릿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합니다. 1인당 GDP 역시 연평균 약 27% 증가하여, 단순 양적 성장이 아니라 부가가치 기반의 질적 성장이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역별 GDP 성장률 (2022~2024 연평균 성장률 기준)



출처: IMF, PwC Analysis

지역별 1인당 GDP 성장률 (2022~2024 연평균 성장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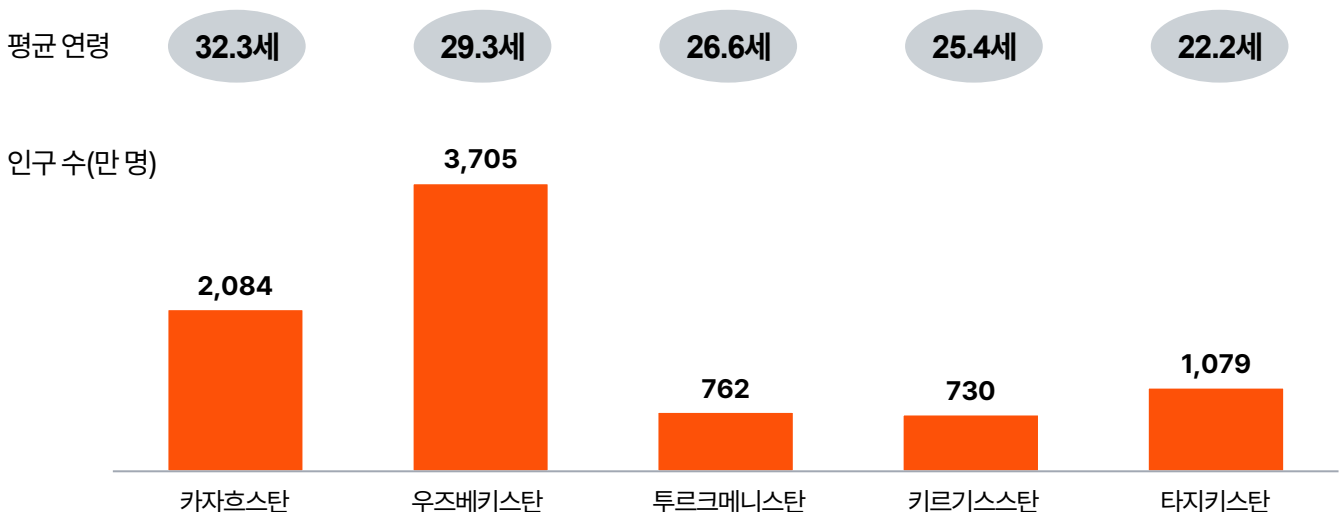


출처: IMF, PwC Analysis

사회: 평균 연령 20대로 미래 경제성장 기대

중아시아는 평균 연령이 20대로 낮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 안정성, 소비시장 확장, 금융수요 확대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기존의 고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중아시아 국가별 평균 연령 및 인구 수 (2025년)



출처: 각국 통계청, Media Research, PwC Analysis

심층 분석 대상 국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GDP 규모와 성장률에서 중앙아시아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확장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타겟으로 하는 투자 및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해 두 국가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별 GDP와 연 평균 성장률

연평균 GDP 성장률
(2020~2024년)

14%

15%

12%

21%

14%

GDP
(2024년, 십억 달러)

285

115

83

17

14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출처: IMF, Media Research, PwC Analysis

주요국의 거시 환경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거시환경 동향

앞서 중앙아시아가 가진 구조적 매력과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금융 수요의 실질적 성장 가능성, 한국 금융기관만의 차별적 진입 근거, 그리고 수익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금융산업 진출을 고민할 때 거시환경 측면에서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기 위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거시환경 핵심 질문

기회	1	기업과 개인의 부의 축적에 따라 금융 수요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2	K브랜드에 기반해 현지 금융업을 공략할 여지가 있는가?
리스크	1	현지 금융의 자본적 가치가 환율로 인해 하락할 위험은 없는가?
	2	구소련권 특성을 감안 시, 반서방권 결집에 따라 서방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출처:PwC

기회 1.

기업과 개인의 부의 축적에 따라 금융 수요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중심의 다각화로 기업 성장 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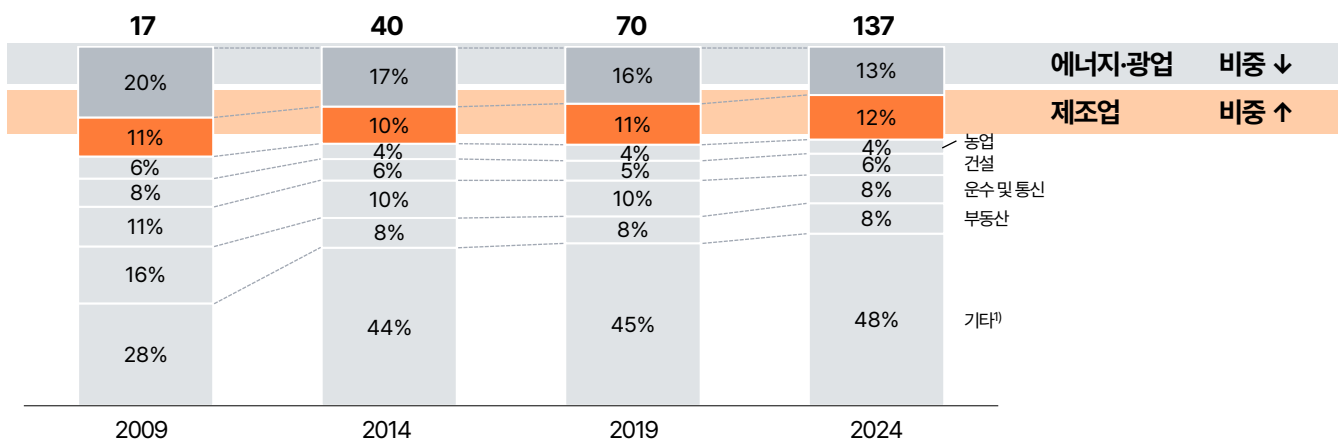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종 내륙국이며 자원보유국 특성상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고, 광업·농업 등 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형성해왔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 산업 다각화 및 수출 촉진 정책과 민간 부문의 대규모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제조업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1차 산업 중심에서 보다 균형적인 산업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기업의 총 생산액은 지난 5년간 20% 넘게 성장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 또한 확대, 내륙국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산업 부가가치 창출이 현실화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카자흐스탄 산업 다각화 정책

1997	카자흐스탄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을 목표로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전략 방향성 천명 제조업·농업·인프라·디지털 산업 강화를 축으로 자원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목표
2003	산업혁신개발전략 (Industrial-Innovative Development Strate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첨단기술·디지털 산업 강화 목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산업단지·물류 네트워크 확충, 인적자원 개발 방안 규정
2010	SPAID (State Program for Accelerated Industrial and Innovative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과 혁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 다각화 목표 전통산업(석유, 가스 등) 및 미래산업(정보통신, 바이오, 신재생 등) 집중 지원 분야 정의
2012	카자흐스탄 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년을 목표로 한 카자흐스탄의 산업 발전 전략 방향성 설정 제조업 강화, 농업 현대화, 혁신·디지털 산업 육성 등 통한 세계 30대 선진국 진입 목표
2018	소비재 산업 강화 (Economy of Simple Thing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 소비재의 국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 다각화 목표 저리 대출·정부 보조금·세제 혜택 제공, 생산 설비와 기술 현대화 지원 등 육성 방안 규정

출처: Media Research, PwC Analysis

카자흐스탄 산업별 GDP 기여도 (단위: TnKZT)



1) 무역, 금융 및 서비스업(헬스케어, 숙박, 요식업 등)
출처: Kazakhstan Bureau of National Statistics, Media Research,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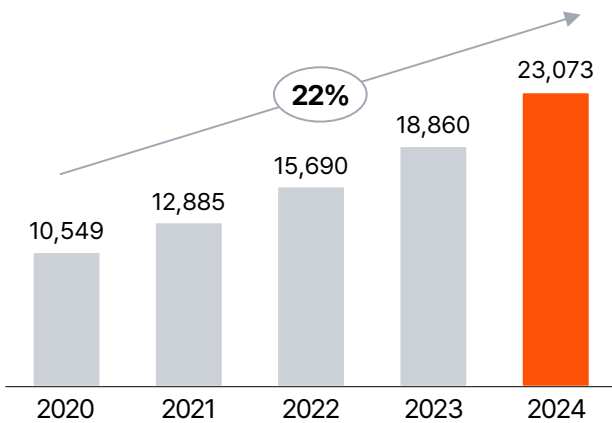
가계 및 기업의 자산 축적 동시 진행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기업 성장과 더불어 개인 소득 수준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기업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가계 부문에도 분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 양국 모두 개인 예금 자산이 상업은행 기준 연평균(CAGR) 약 20%대(카자흐스탄), 40%대(우즈베키스탄)의 고속 성장 중입니다.

양국의 은행 개인 수신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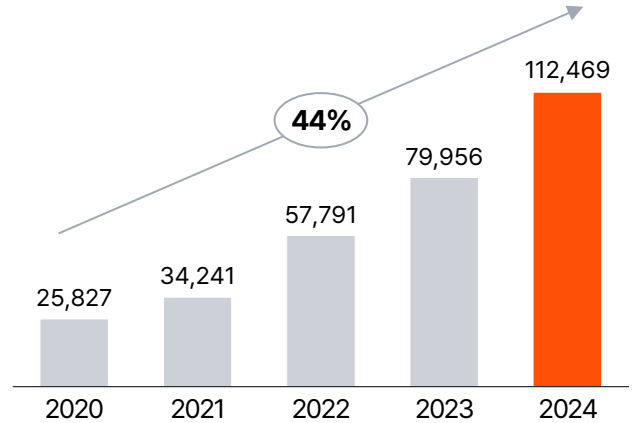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은행 개인 수신 규모

(단위: 십억 KZT)



우즈베키스탄 은행 개인 수신 규모

(단위: 십억 UZS)



출처: 각국 중앙은행, PwC Analysis

레버리지 기반 투자 확대 수요 증가, 금융 수요 성장 잠재력 높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은 기업 및 가계의 자산 축적 속도에 기반한 금융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현지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축적된 자산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증식하는 차원을 넘어,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출·투자·자산관리 분야 전반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의 의견

“

현지 기업은 수익성 개선 이후 레버리지 기반 투자 확대라는 재무적 선순환 구조 형성 중

- 카자흐스탄 은행 대출 전문가

“

현지 신흥 부유층은 안정적 자산관리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투자처 탐색에 대한 니즈 동시 존재

- 우즈베키스탄 은행 PB 전문가

출처: 전문가 인터뷰,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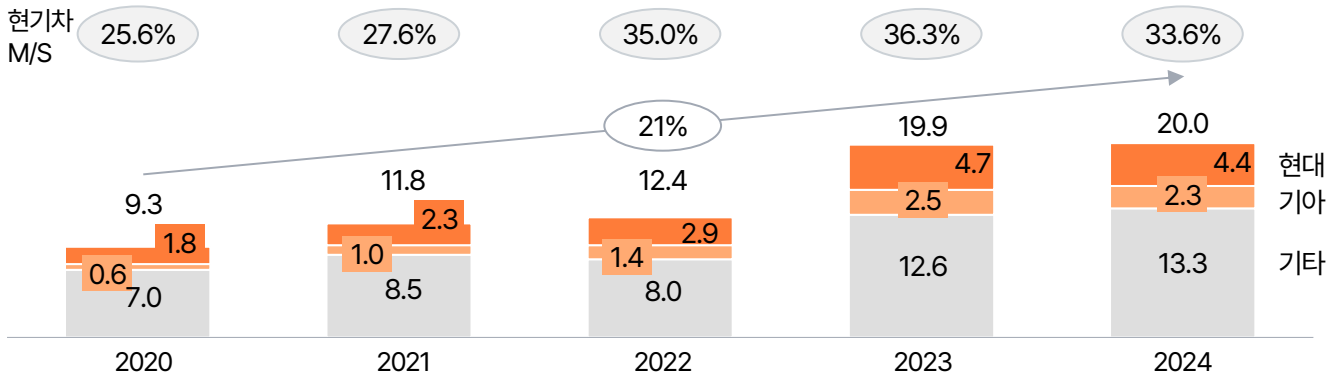


K브랜드의 프리미엄 인식 형성

한국의 엔터테인먼트가 촉발한 한국에 대한 선호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단일 콘텐츠 영역을 넘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K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선호가 확산되면서 K브랜드가 프리미엄 이미지로 인식되기 시작, 이러한 인식이 교민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에서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 **식품:** 한국 식품의 양국 수출액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약 38%, 우즈베키스탄에서 약 60%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 카자흐스탄 내 신차 판매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의 점유율은 20%~30% 대로 안정화 되어있으며 중국산 완성차 대비 프리미엄 브랜드 포지셔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헬스케어:** 한국을 방문하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관광객은 각각 연평균 56%, 20%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 서비스는 중증질환 치료, 피부과·성형외과, 종합검진 등 고부가가치 헬스케어 영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카자흐스탄 자동차 판매량 및 현대·기아차 점유율 추이 (단위: 만대)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KOTRA, Media Research, PwC Analysis

K브랜드에 대한 현지의 인식



한국 상품과 콘텐츠는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믿을 수 있는 프리미엄 이미지로 각인

- 카자흐스탄 한국기업 연합체 간부



한국 의료 모델은 카자흐스탄 의료계가 반드시 배워야 할 선진 의료 모델

- 카자흐스탄 前 부총리

출처: 전문가 인터뷰, PwC Analysis

현지 금융 선진화 수준 저조, 금융사업 공략 지점 존재

IMF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선진화 수준은 중하위권에 위치,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와 비교할 때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시장 진입이 아직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 시, 한국 금융사 입장에서는 K금융의 선진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진입 기회가 존재한다고 평가됩니다.

현지 금융 수준 및 외국계 은행 진출 현황 (2020년)

IMF 평가 금융선진화 순위			우즈베키스탄 내 주요 외국계 은행 진출 현황		
그룹	순위	국가	은행명	모형 소재국가	금융선진화 순위
선진 그룹	1위	스위스	Bank Saderat	이란	34위
	2위	미국	Ziraat Bank	튀르키예	38위
	7위	대한민국	Ipoteka Bank	헝가리	48위
중위 그룹	66위	카자흐스탄	Tenge Bank	카자흐스탄	66위
	71위	조지아	TBC Bank	조지아	71위
	84위	우즈베키스탄	선진 금융기법 기반을 갖춘 외국계 은행 부재		
140위	키르기스스탄				
160위	타지키스탄				
하위 그룹	161위	투르크메니스탄			

출처: IMF, PwC Analysis

리스크 1. 현지 금융의 자본적 가치가 환율로 인해 하락할 위험은 없는가?



물가 인하 가속 시 환율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 기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현지 통화는 달러 대비 장기간 평가절하 추세를 지속해왔습니다. 다만 양국 통화는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부분적인 평가절상 흐름이 관찰되고 있어 환율 안정화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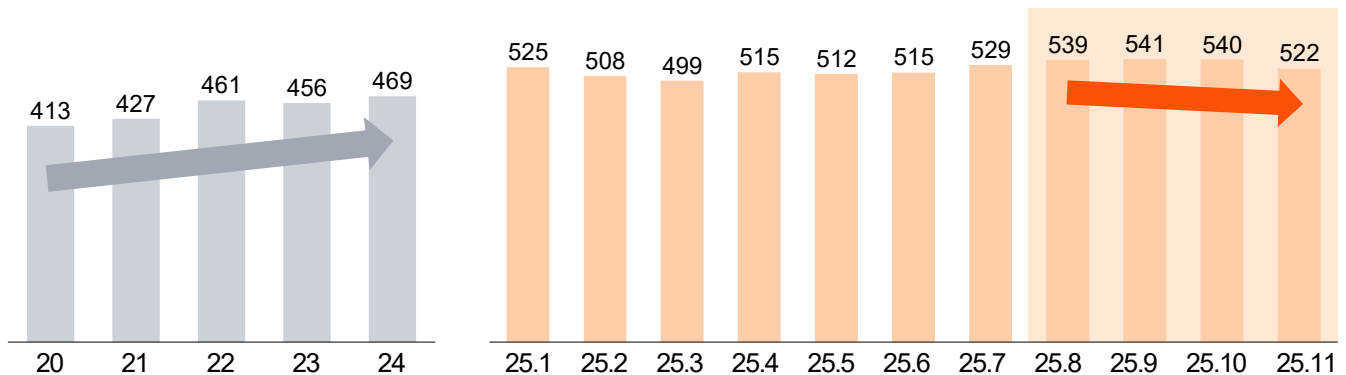
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완만한 하락 추세에 있으며, 선진국 대비 격차 역시 축소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환율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 또한 기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달러당 카자흐스탄 텡게화 환율 추이

텡게화 평가절하 5년 연속 지속



최근 절상 추세로 전환하였지만, 추세 장기화 가능성 지속조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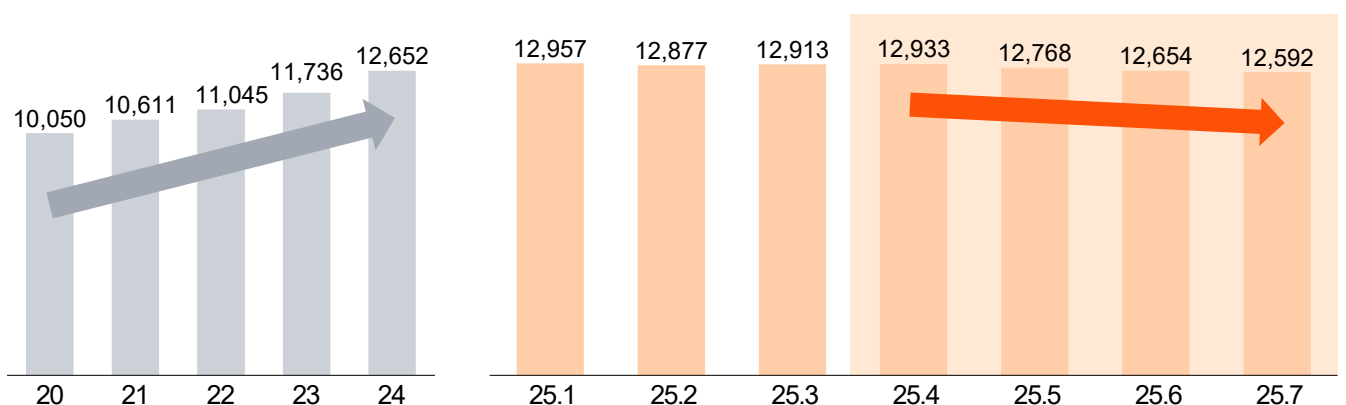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wC Analysis

달러당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 추이

솜화 평가절하 5년 연속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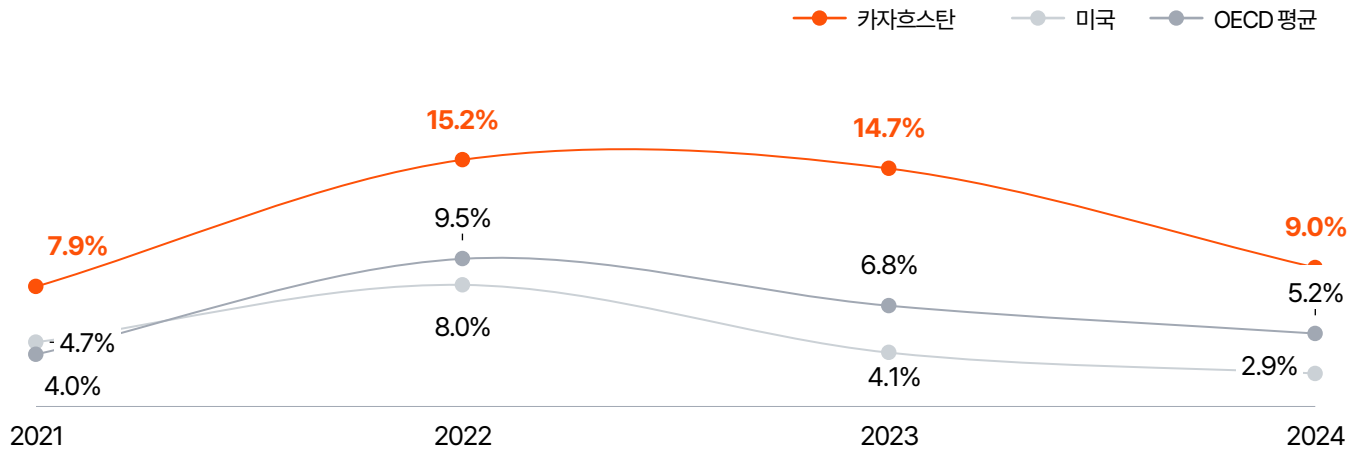


최근 절상 추세로 전환하였지만, 추세 장기화 가능성 지속조망 필요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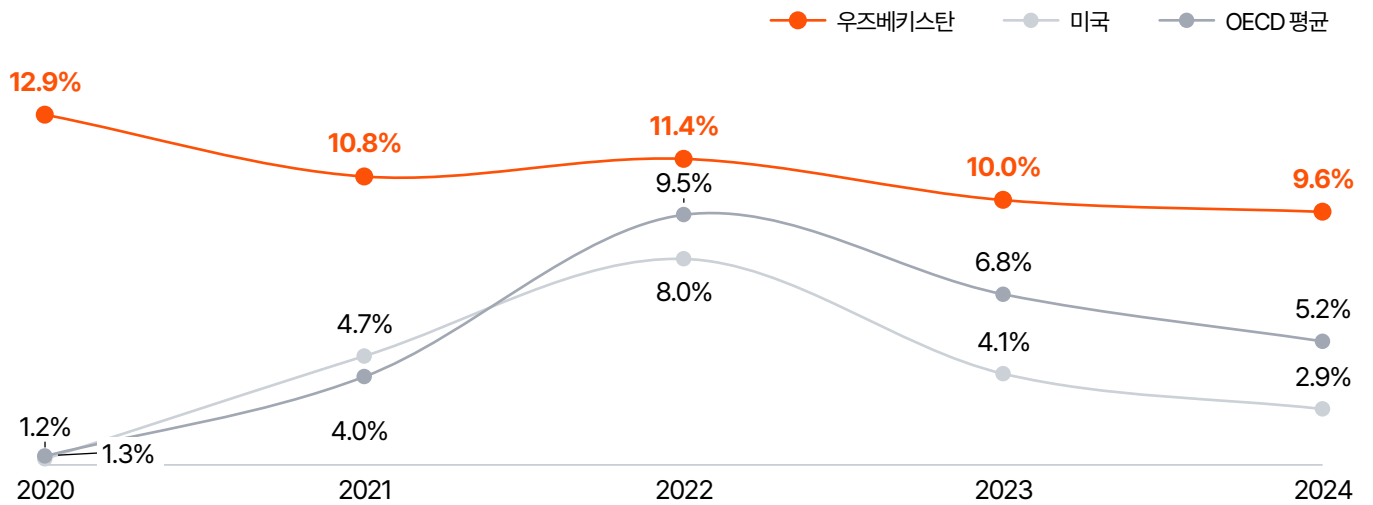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CPI 상승률 추이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202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6.7%(2023년 OECD 평균 수준) 달성 목표

출처: World Bank, Media Research, PwC Analysis

우즈베키스탄 CPI 상승률 추이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2027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2024년 OECD 평균 수준) 달성 목표

출처: World Bank, Media Research, PwC Analysis

리스크 2. 구소련권 특성을 감안 시, 반서방권 결집에 따라 서방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가?



실리 중심의 중립적 외교노선으로 제재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전망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중국에 주도하는 '반(反)서방권'에 전략적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시각은 존재해왔으며, 이는 구소련권이라는 역사적 배경과 러-우 전쟁 장기화, 미-중 경쟁 심화 등 국제정세가 결합해 형성된 인식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외교 행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양국은 실리주의 기반의 균형외교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방과는 다자주의 기반의 경제 협력 및 제도적 연계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러시아-중국 등 비서방권과는 국가 단위의 개별 협력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특정 진영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는 외교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반서방권 결집으로 인한 서방의 제재 리스크는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국은 경제성장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특정 진영 편중 외교를 통해 성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카자흐스탄 서방권 vs 반서방권 외교 동향

서방권 주요 협력 동향	vs	반서방권(러중) 주요 협력 동향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연대에 집중한 협력		경제 실익 증대 위한 최대교역국 중심 협력
2011 EU-EPCA 가입 위한 협상 개시 EPCA는 EU와 정치, 경제, 환경, 사회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협정으로 EU 이사회가 집행위에 EPCA 협상 개시 권한 부여		2001 중국 상하이 협력기구(SCO) 창립 중국 정부 주도의 경제 블록으로 회원국 간 경제적 연계, 다자간 무역을 통한 경제 협력 확립. 관세 감면·세관 절차 간소화 등 혜택
2015 EU-EPCA 가입 협정 공식 서명 법률검토 등 완료 후 공식적으로 서명하여 가입국 관세 혜택, WTO 가입 지원, EU 예산 자금 지원 기회 등 확보		2015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창립 러시아 주도의 경제 블록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공동 창설. 가입국 간 무관세 혜택
2025. 11 미국-카자흐스탄-영국 경제 협력 공동 협의서 체결 CIS 회담 내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 논의: AI, 광업, 항공 인프라, 농기계 분야 투자 협의 및 MOU 체결		2023 중국-카자흐스탄-영국 회담 카자흐스탄 국민의 중국 내방, 양국 회담, 공동 성명 서명 및 경제 무역, 에너지, 교통 등 다수 영역에서 협력 강화 추진
2025. 11 친미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가입 트럼프가 주도하는 협정으로 이스라엘 포함한 협정국 간 경제적 협력,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파트너십 형성하여 상호 이익 추구		2025. 02 러시아-카자흐스탄-영국 회담 양국간 교역 품목 확대, 운송인프라 개발 등 양국간 무역과 경제 협력 증진 방안 논의, 연간 교역 규모 300억 달러까지 확대 추진

출처: 외교부, 미국무부 Joint Statement of Intent on Economic Cooperation, Media Research, PwC Analysis

주요국의 금융업 특성과 사업 기회

특성과 기회 요인

앞서 중앙아시아의 매력을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집중하여 기회와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두 국가는 고성장 국면 속에서 기업과 가계의 자산 축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이어서 한국 금융기관의 시장 진입에 있어 유의미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나, 양국 정부의 실리 중심 외교 기조와 물가 안정화 추세를 감안하면 중장기적 투자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양국 금융업의 구조적 특성과 업종별 사업 기회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양국 금융 시장은 공통적으로 은행업에 편중된 시장 구조 속 낮은 금융 포화도, 리테일 및 중소기업 중심의 신용 수요 확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안정적 이자마진 확보 가능성과 외화 거래 서비스 수요,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K콘텐츠를 결합한 저비용 고효율 모객 채널이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금융업 사업 기회

1	낮은 금융 심화도를 활용한 신규 수익 확보	GDP 대비 은행 총자산 비율이 50% 수준인 전형적인 금융소외 시장으로서 한국 금융사의 고도화된 운용 기술로 수익 실현 예상
2	금융 공백을 타겟팅한 리테일 및 SME 신용 시장	저축률이 낮은 리테일 부문과 금융 공백이 큰 중소기업 부문이 공존하는 미성숙 금융 시장으로서 한국의 고도화된 신용평가·운용 역량으로 기회 다수 전망
3	안정적 이자마진 및 FX 거래·서비스 확대	고금리 기조와 환율 변동성이 있어 이자마진은 단기적으로 유효하며, 외화 수요 확대에 힘입어 FX 거래·서비스 영역에서 기회 기대
4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K콘텐츠를 통한 모객	젊은 인구와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모바일·플랫폼 금융으로 확장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와 금융 서비스를 결합하여 차별적 기회 예상

출처:PwC

사업 기회 1.

낮은 금융 심화도를 활용한 신규 수익 확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은행이 결제, 예금, 대출 인프라를 사실상 독점하는 형태로 금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 은행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소외된 저소득층, 농촌 및 영세 사업자의 자금 수요를 흡수하는 소액 대출기관(Microfinance Organization, MFO)이 보완적 신용공급 채널로서 빠른 속도의 외형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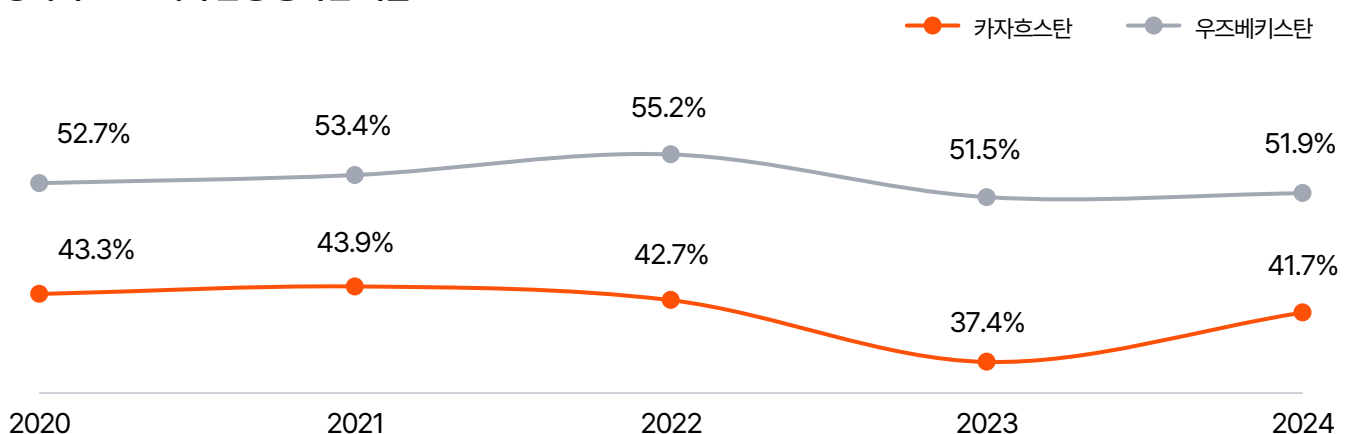
이러한 은행업 중심의 구조 하에서도 현지 은행업에 대한 기회는 존재합니다. 양국의 금융 시장은 전체 자산의 90% 이상이 은행업에 편중되어 있으나, GDP 대비 은행 총자산 비율은 여전히 50% 내외에 머물러 있는 전형적인 금융소외 시장입니다. 이는 한국 금융기관이 고도화된 운용 기술과 디지털 뱅킹 역량을 투입하여 현지의 낮은 금융 도입도를 제고하면 성장과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자본 시장의 개방 시점과 성숙도에 따라 비은행 금융업에서는 양국이 차별화된 양상을 보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비은행 금융시장(보험 및 증권)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한 국가 자본 축적에 더하여 정부차원의 금융 선진화 정책 등이 뒷받침 되어 우즈베키스탄 대비 시장 형성에 상대적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아직까지 성숙도는 제한적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보험 시장은 정부 주도의 육성책과 디지털 인프라 확산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침투율은 여전히 1% 내외이며 증권 시장 역시 외형적 시가총액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한 상위 사업자로의 이익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중개업 영역의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자본시장 인프라의 미성숙으로 인해 여전히 금융 주도권이 은행에 압도적으로 종속된 특징을 보이고 있어, 향후 카자흐스탄이 거처온 자본시장 현대화 경로를 따르는 과정에서 퍼스트 무버에게 높은 선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국의 GDP 대비 은행 총자산 비율



출처: World Bank, 각국 중앙은행, PwC Analysis

사업 기회 2.

금융 공백을 타겟팅한 리테일 및 SME 신용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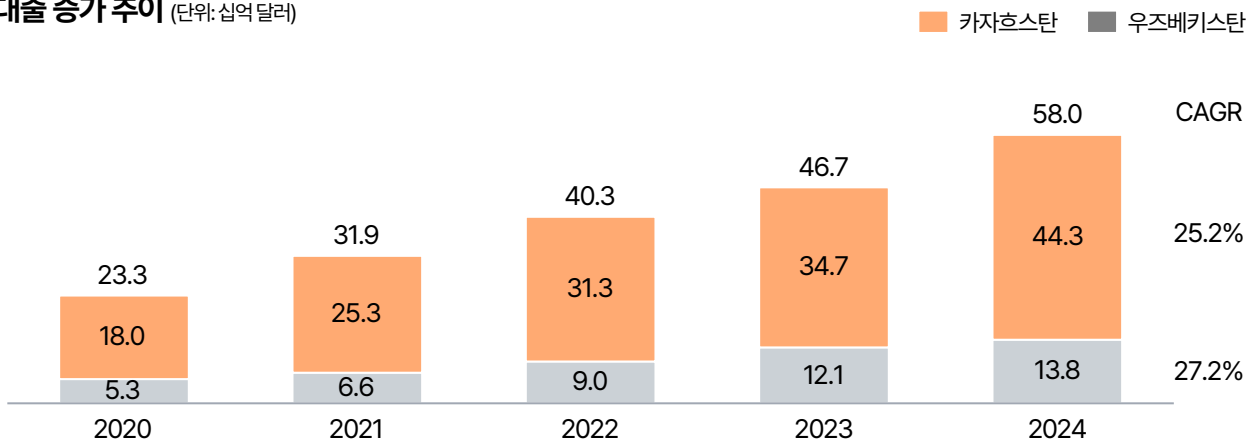
양국의 낮은 저축률¹⁾은 장기간 지속된 각국 통화의 변동성 및 평가절하 리스크로 인해 현금 자산보다 부동산, 자동차 등 실물 자산을 취득해온 관행의 산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대규모 가족 행사와 공동체적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적 소비 관습이 더해지며 가계 소득의 즉각적인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만성적인 자본 부족분을 카스피(Kaspi)나 우줌(Uzum)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서비스가 기민하게 파고들면서 저축 기반이 결여된 '부채 주도형 소비 팽창' 구조를 더욱 공고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매금융 측면에서는 양국 모두 국가 주도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현지의 보수적인 담보 위주 대출 관행과 고도화된 신용 리스크 평가 모델 부재로 인해 중소기업 대출은 여전히 수요와 공급 간의 구조적 미스매치와 금융 공백이 있어 향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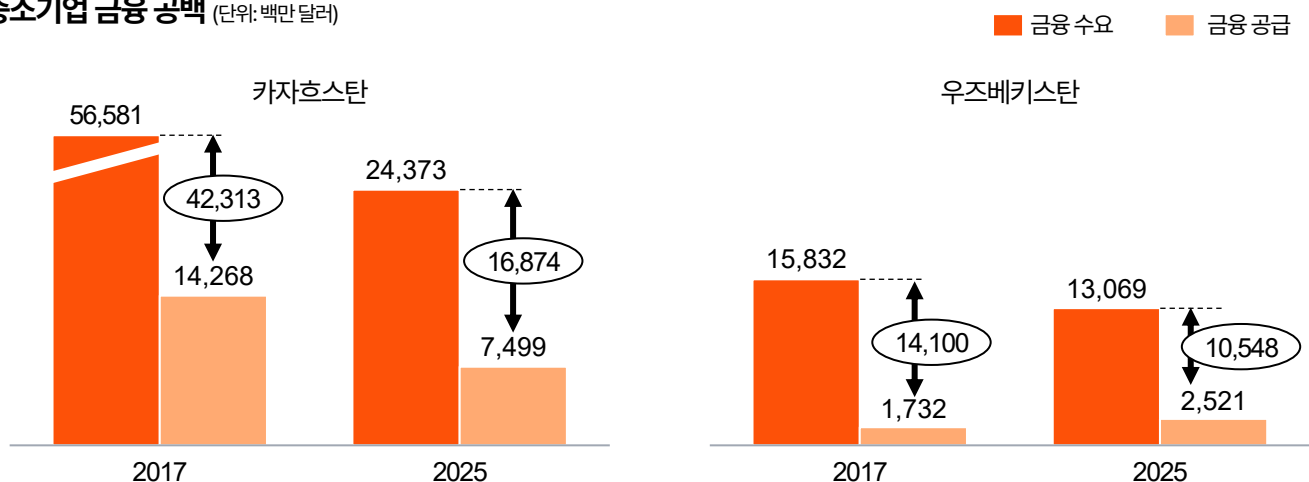
1) 한국 61%, 카자흐스탄 27%, 우즈베키스탄 9% (2024년 기준, World Bank)

개인대출 증가 추이 (단위: 십억달러)



출처: 각국 중앙은행, PwC Analysis

중소기업 금융 공백 (단위: 백만달러)



출처: IFC, PwC Analysis

사업 기회 3. 안정적 이자마진 및 FX 거래·서비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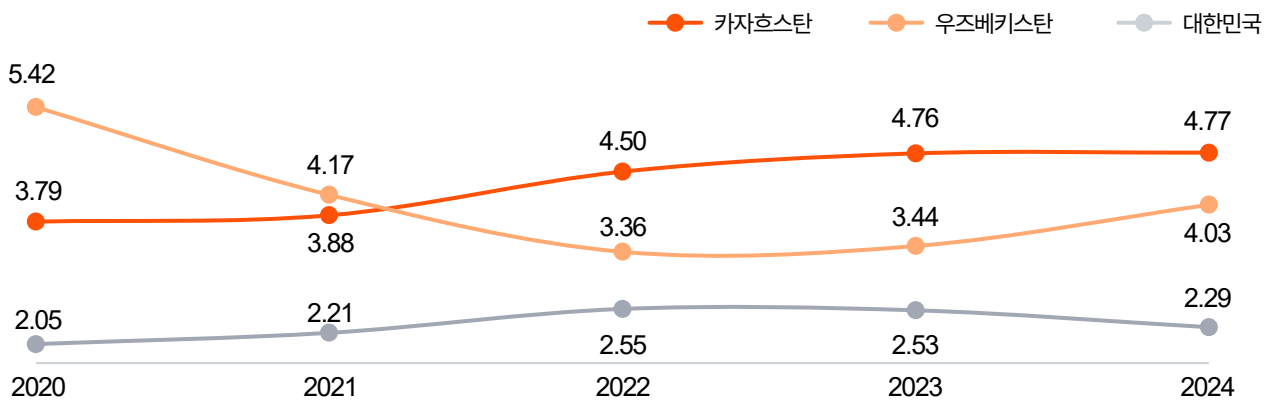


양국은 인플레이션과 환율 변동성에 대응해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어 왔으며 최근에도 양국의 기준금리는 10%를 상회(카자흐스탄 18.0%, 우즈베키스탄 14.0%)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완화 조짐에 따라 환율 역시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안정화의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하여 현 시점의 예대금리 차이 수준이면 고금리를 활용한 이자마진 기반 수익성 확보는 현시점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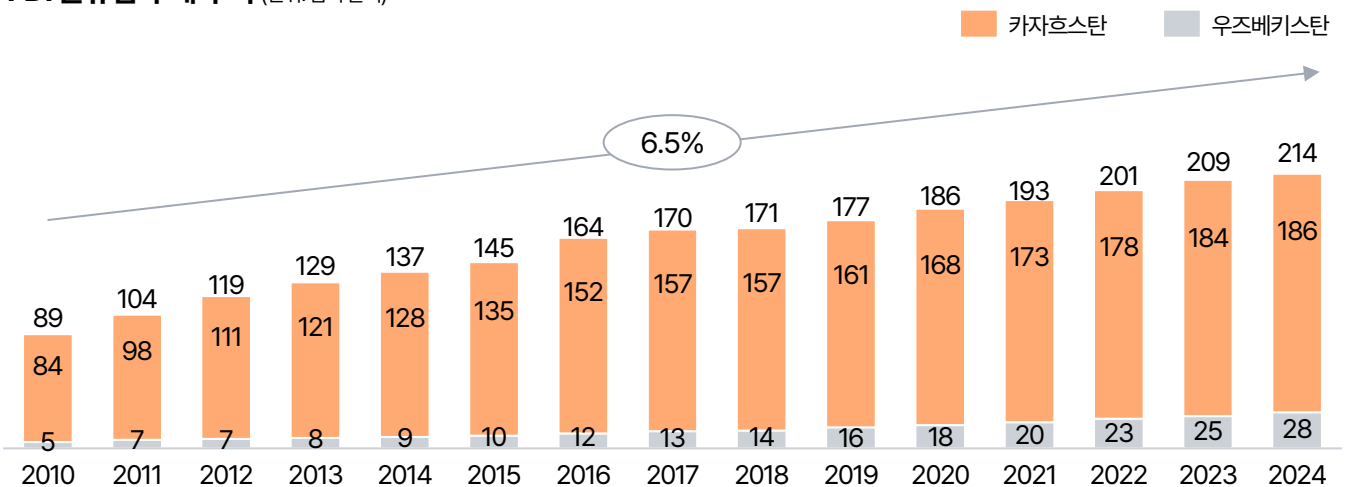
한편, 양국 모두 외화에 대한 수요 역시 뚜렷합니다. 이는 내국 통화 변동성이 지속되어왔던 구조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FDI 등 대외자금 유입이 지속되는 양국의 산업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환전, 송금 등 FX 거래와 서비스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별 연도 말 은행 예대금리 차이 (단위: %p)



출처: 각국 중앙은행, PwC Analysis

FDI 순유입 누계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출처: World Bank,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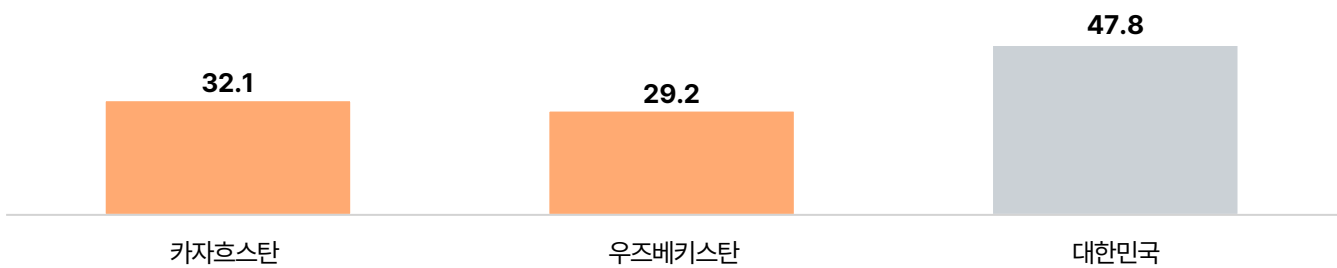
사업 기회 4.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와 K콘텐츠를 통한 모객



양국 모두 젊은 인구와 높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금융 채널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 서비스의 내용 또한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문화, 커뮤니티 전반으로 확장될 잠재력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국 모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바일 보급률이 높은 수준을 보이며, 모바일·온라인 기반 디지털 금융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에서 K컬처 소비가 확산되고 있으며, 그 소비 경로 역시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콘텐츠 소비와 유입 채널 자체가 디지털에 고착된 구조로, 금융사 입장에서는 단순 금융 상품 판매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 굿즈, 멤버십 등과 연계된 모객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결국 고객이 디지털에서 즐기는 문화 흐름 속에서 금융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 기회요인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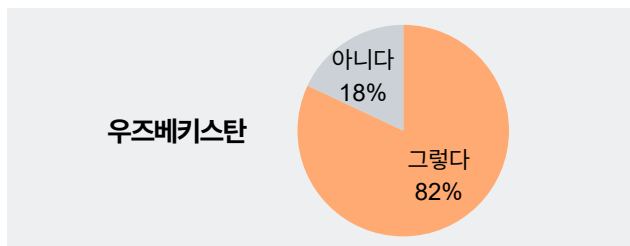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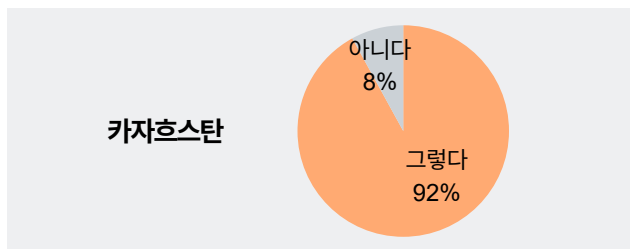
중위 연령 (2025년, 단위: 세)



출처: CIA World Factbook

모바일 보급률 (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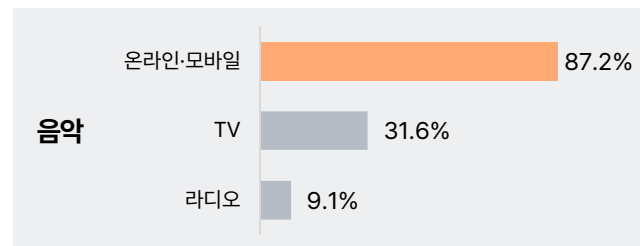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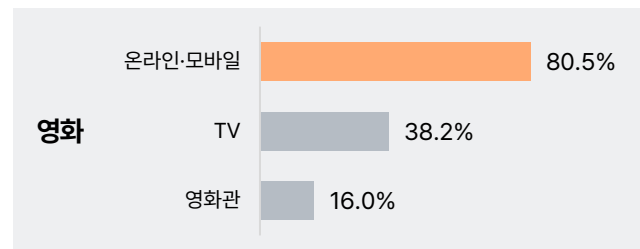
Q. 귀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출처: World Bank, PwC Analysis

카자흐스탄 한류 경험자의 한국 콘텐츠 접촉 경로 (2025년)

Q. 귀하가 평소 한국 문화콘텐츠를 접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중복 선택 가능)



출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PwC Analysis

국내 금융사의 진출 전략

금융업권별 차별적 접근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시장은 역사적으로 은행과 MFO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업권별 성숙도 차이에 따라 진입 전략 역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은행과 MFO 분야는 상위 사업자 또는 국영 기업이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므로 특정 고객군, 채널, 상품 구조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비즈니스 모델로 니치를 공략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니치 공략의 핵심은 어떻게 리스크를 통제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반면, 보험 및 증권 분야는 시장 인프라·제도·유동성 측면에서 미성숙 단계에 있어 단기 상업화는 어려우나, 제도 변화와 시장 성숙도에 연동된 중장기적 진출 기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단기 영업 확대보다는 정책 방향성, 기관투자자 성장, 민영화, 언더라이팅 체계 고도화 등 시장 변화에 대한 관찰과 기반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금융업권별 시장 개요 및 진출 방향

	시장 개요	진출 방향
은행	상위 소수 사업자 중심의 구조로,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가 대중화되어 고객 락인 효과가 강하게 작용, 전환 장벽이 높음	리스크 관리 하에 니치 마켓 공략
MFO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가 존재하는 분산된 시장 구조인 동시에 소수의 상위 MFO가 점유하는 고집중 특성이 병존, 조달 효율화 및 리스크 관리가 핵심 경쟁력	저리 조달 기반 전속 오토론 모델 차별화
보험	자동차 보험 등 의무보험 중심으로 손보 시장이 성장하고, 리스크 기반의 가격결정과 데이터 기반 클레임 관리가 고도화되고 있으며, 생보 시장은 카자흐스탄 중심 급성장 중	시장 성숙에 따른 중장기 접근
증권	양국 모두 얽은 시장 유동성으로 리테일 브로커리지 기반 수익모델의 확장성은 제한적, 민영화 확대 추이에 따라 IB 영역에 대한 중장기적, 선택적 진출 모색	

출처: PwC

은행: 콘텐츠 차별화 기반 니치 마켓 공략 및 SME 여신 강화

과점 시장 내 니치 마켓 선점 전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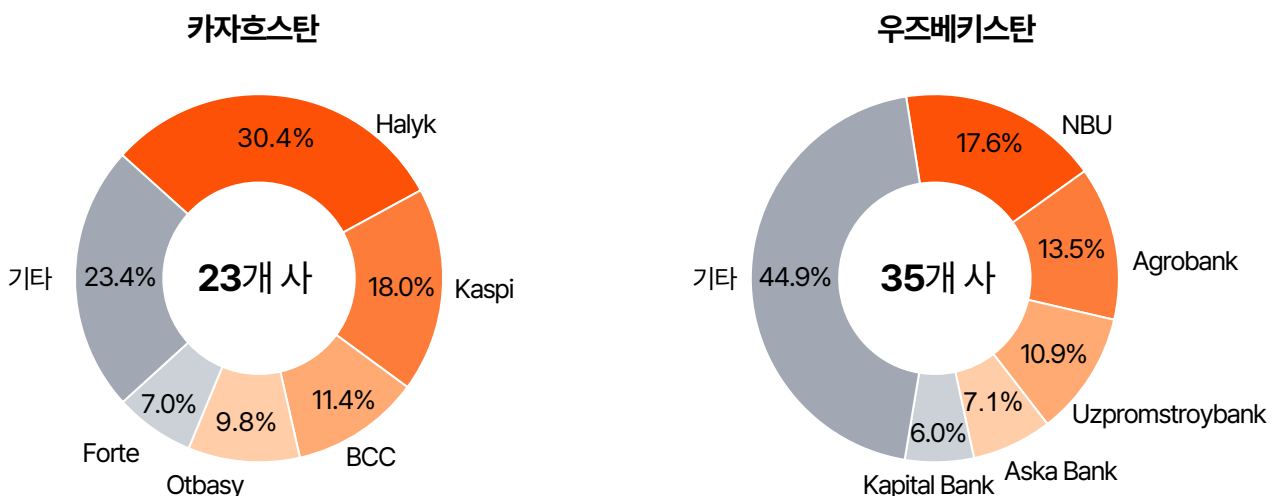
양국은 공통적으로 상위 대형 은행이 시장을 장악한 과점 구조입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은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에서 민영화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어 국영 사업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금융기관이 범용적인 बैं킹 서비스만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실질적인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현지 대형 사업자와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한국 금융만의 차별화가 가능한 니치 마켓을 공략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이 현실적입니다.

K컬처 기반의 브랜드를 활용한 고객 접점 확대

중아시아 전역에 걸친 한국 문화의 강력한 영향력은 금융 서비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핵심 동인입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과 달리 아직 CU와 같은 한국 유통기업이 본격적으로 상륙하지 않았으나, 전 세계 중 중국, 베트남, 몽골에 이어 네 번째, 중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유학생¹⁾을 한국에 보내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 문화와 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습니다. 인구 구조상 결국 이들이 사회 내의 지배적 연령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K컬처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금융 상품에 녹여 'K금융'에 대한 호의적인 포지션을 구축한다면, 고객 획득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관여 고객군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2024년 기준 약 12,000명 (한국교육개발원)

양국 상위 5개 대출시장 점유율 (2025년 대출자산 금액기준)



출처: 각국 중앙은행,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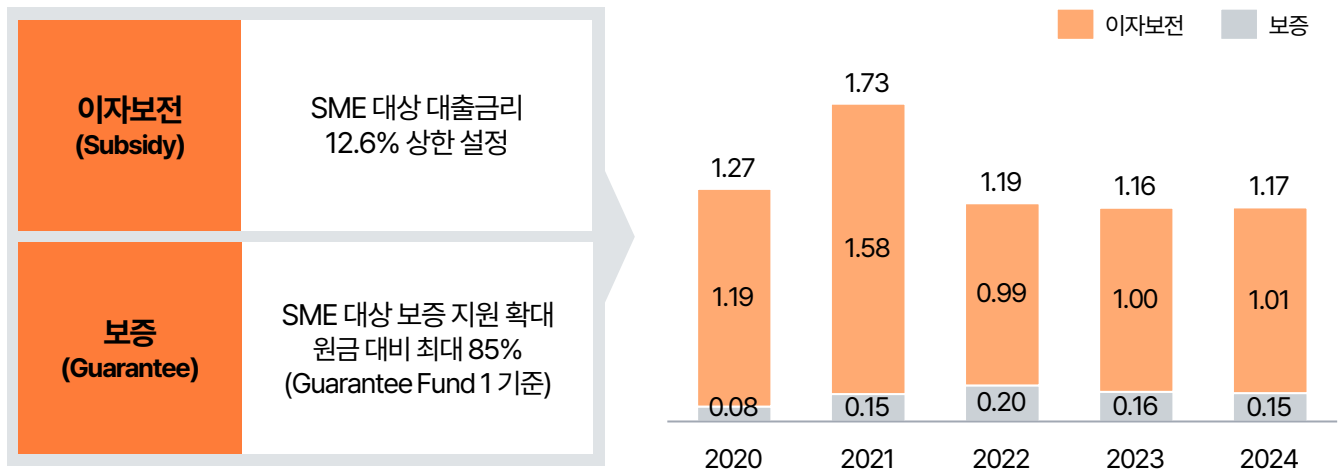
대안적 신용평가 및 정책금융을 활용한 SME 여신 경쟁력 강화

여신 측면에서는 만성적 초과 수요 상태인 SME 시장 공략이 필수입니다. 현지 은행이 SME 금융 확대에 난항을 겪는 본질적인 이유는 불투명한 소득 증빙과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공과금 납부내역, 현금 지출내역 등 현지 특수성을 반영한 비정형 데이터에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하면 저평가된 우량 차주를 식별함으로써 여신 건전성과 포트폴리오의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현지 SME의 기초 체력 부족으로 인한 신용 리스크는 카자흐스탄의 다무(DAMU), 우즈베키스탄의 기업가 지원 기금(State Fund for Support of Entrepreneurship)과 같은 정부 정책 기금의 신용 보강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헛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금융사는 새로운 시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자산을 확대하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국 공히 공급망 금융 생태계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예: 카자흐스탄 공공조달 팩토링 법제화, 우즈베키스탄 팩토링 양도 대항력 명문화 등)을 마련 중에 있어 향후 실물 자산 외 매출채권 담보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상황을 예의주시함으로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SME 여신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무 지원 형태 및 금액 추이 (단위: 조 KZT)



출처: DAMU, PwC Analysis

MFO: 원가우위 기반의 전속 오토론 포트폴리오 구축

오토론 포트폴리오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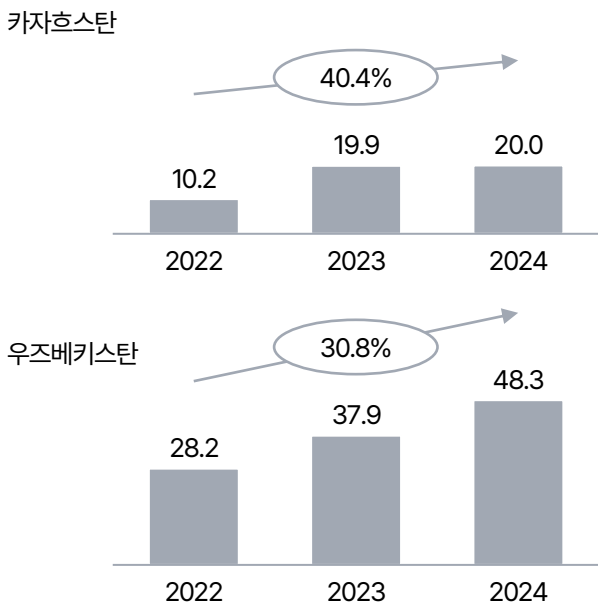
양국은 시장 동인의 차이는 존재하나 오토론이 MFO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에 대한 공격적인 여신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은 경제 성장 및 가치분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고도화가 할부 금융 수요를 견인하는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국영 제조사(UzAuto) 중심의 공급 독점에 따른 만성적 초과 수요와 차량의 자산 가치 보존 심리가 핵심 동력입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공급망이 중앙아시아로 재편되어 한국 완성차 제조사의 현지 생산과 유입이 급증한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완성차 제조사 및 주요 딜러십과 연계한 전속 금융 모델을 구축하여, 신차와 중고차 시장의 강력한 대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흡수할 경우, 현지 내 자산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헷지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는 상각 자산이고 시장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담보가치의 급격한 하락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담보차량 재판매 시 가치하락에 따른 회수 저조 리스크와 경매집행 연기 및 유찰 시 할인 판매 등으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즉, 오토론의 핵심은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헷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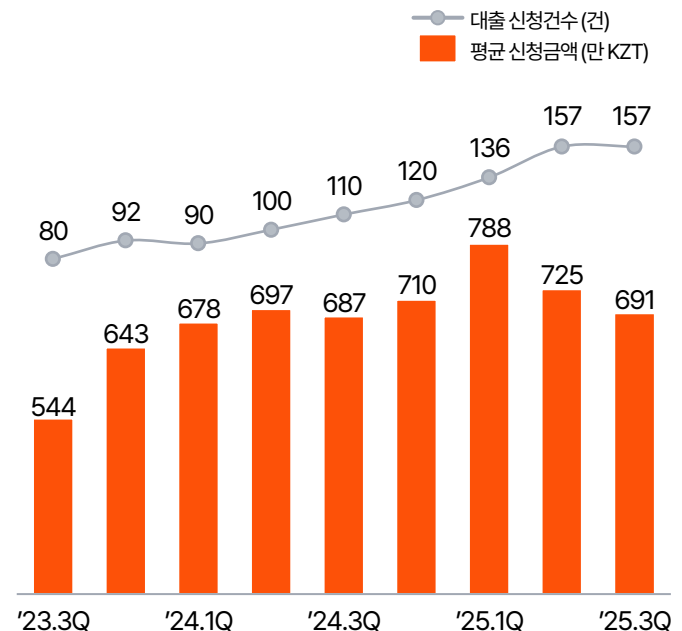
이에 금융사-제조-딜러사 간 판매 협업 구조를 넘어, 제조-딜러사의 환매 협업(예: 금융사의 담보차량 회수 시 딜러 선매입 후 재판매)을 통해 담보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차 판매량 추이 (단위: 만대)



출처: Media Research, PwC Analysis

카자흐스탄 오토론 대출 신청 건수 및 평균 신청액



출처: National Bank of Kazakhstan, PwC Analysis

모회사 초기 신용공여 기반 조달 최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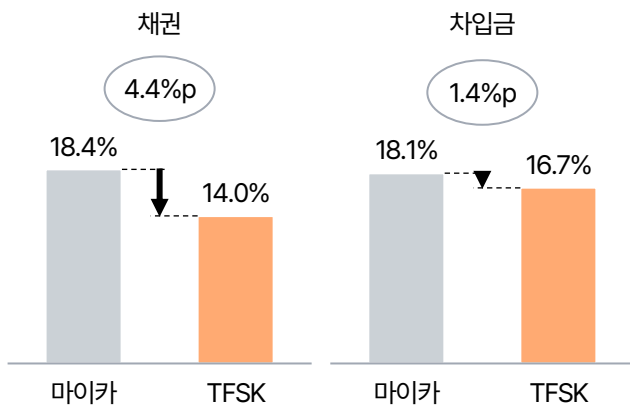
외국계 법인은 현지 내 트랙 레코드가 없기 때문에 독자적 자금 조달 시 평균 약 20%의 고금리를 적용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모회사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하여 신용공여가 가능할 경우, 경쟁사 대비 조달금리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TFSK(Toyota Financial Service Kazakhstan)는 모회사의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현지 신용등급에 준하는 상위 티어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로컬 MFO 중 가장 큰 자산규모를 가진 마이카(MyCar) MFO의 채권 발행금리 대비 약 4%p 이상의 원가 우위를 점하는 수준입니다.

단순 조달 금리 차원을 넘어, 가용 유동성 규모의 차이 역시 본질적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현지 자본시장은 대외 변수에 따른 유동성 변동이 높아 모회사, 계열사 기반의 증자 또는 장기차입 지원 여부가 조달 안정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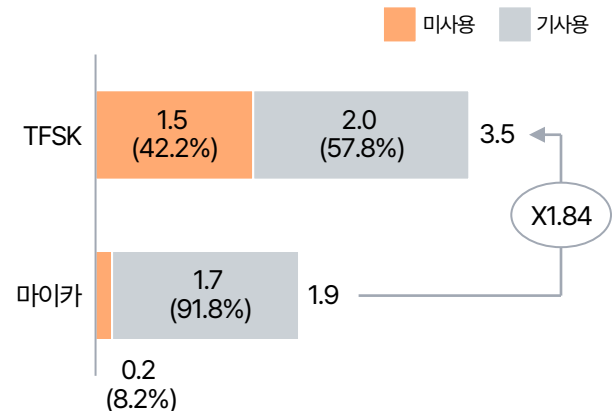
TFSK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신용한도 확보뿐 아니라, 토요타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지원을 통해 마이카 대비 약 2배의 신용한도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한도 연간 소진율이 57.8%에 불과해 91.8%를 소진한 마이카 대비 여유 있는 유동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공격적인 영업 여력 확보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한국 금융기관은 진입 및 정착 초기 모회사 또는 계열사의 신용공여를 통한 저리 자금 지원을 선행하여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이카 vs TFSK 조달 금리 차이 (2024년)



출처: 각 사 재무제표, PwC Analysis

마이카 vs TFSK 신용한도 차이 (2024년, 단위: 천억 KZT)



출처: 각 사 재무제표, PwC Analysis

보험: 리스크 정교화 및 시장 성숙도에 따른 단계적 시장 진입

자동차 보험 중심의 시장 성숙과 리스크 기반 가격결정 체계로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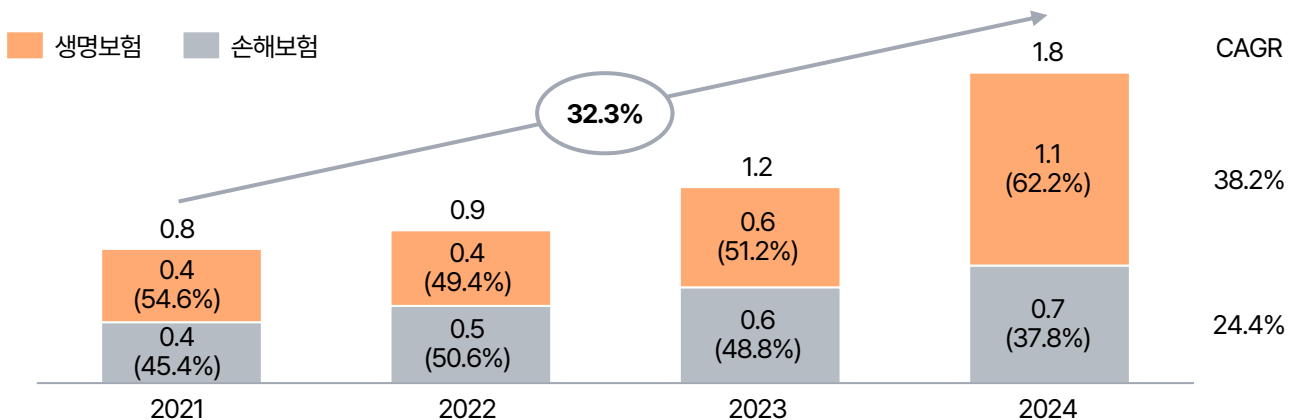
양국의 보험 시장은 자동차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계리 및 통계 기반의 정교한 리스크 평가 체계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최근 보너스-말루스(Bonus-Malus; 사고 이력 기반 보험료 차등화) 등급을 기존 15등급에서 18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등 사고 이력 기반의 리스크 차등화를 통해 우량 운전자 타겟팅이 가능한 구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2019년 이후 시장 개방과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며, 2024년부터 단일 자동차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험계약 등록과 증권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앙 집적을 통한 요율 산정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시장 성숙 정도를 고려한 중장기적 생명보험 시장 진출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손해보험 위주의 초기 시장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카자흐스탄은 정부 주도의 세제 혜택과 연금 자산의 생명보험 이전 제도를 동력으로 생명보험이 손해보험 규모를 상회하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보장성 시장을 넘어 자산 관리 및 저축성 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리스크 기반 가격 책정 구조가 생명보험 영역까지 확산되어 데이터 중심의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양국 모두 한국 대비 데이터의 표준화, 기관 간 연계성, 가공 품질 측면에서는 여전히 초기적 단계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인프라의 미비는 언더라이팅과 손해율 관리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시점에서 직접 진출은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지 디지털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한 데이터 확보와 현지 요율 학습에 집중하고, 향후 데이터 축적과 시장 성숙 이후의 중장기적 진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카자흐스탄 보험 시장 규모 (단위: 조 KZT, 수입보험료 기준)



출처: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 발전청(ARDFM), PwC Analysis

증권: 민영화 확대 흐름 속 IB 사업 기회

구조적 제약 하의 미성숙 자본시장

카자흐스탄의 자본시장은 1993년 KASE(Kazakhstan Stock Exchange) 설립 이래, 상장기업 수 부족, 개인투자자 기반 미성숙,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약 등 구조적 요인으로 주식 유동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영국법 기반 규제체계 적용과 글로벌 커스터디 연계를 특징으로 하는 AIX(Astana International Exchange)를 개장하여 거래소 체계를 이원화하고 해외 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 변동성, 제한적인 IPO 파이프라인 등 근본적인 제약 요인이 지속되며 유동성 확충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식시장은 이보다 더 초기 단계로 기업공개 인프라, 투자자층, 거래 시스템 면에서 태동기입니다. 정부는 민영화 정책과 런던증권거래소(LSE) 이중 상장 등을 통해 해외 자본 유입을 모색하나, 거래량, 시가총액, 상장기업 수 기준으로 여전히 작습니다. 따라서, 한국 금융사가 리테일 브로커리지 기반으로 단기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은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

민영화에 따라 기회가 확대되는 IB 사업

또다른 기회로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IB 수요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2021~2025 민영화 종합 계획'을 통해 공공부문 비중을 약 14%로 축소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상은 주로 전력, 통신, 운송 등 준독점적 공공 서비스 사업자로서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주로 비상장 기업이므로 매각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높으며, IPO, M&A 등 여러 영역에서 IB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시장 중심 경제로의 체제 전환이라는 본질적 변혁 단계에 있으며, 2026년까지 GDP 중 민간 비중을 85%를 목표로 공격적인 자산 매각이 예상됩니다. 카자흐스탄이 우량 국영기업의 부분 민영화를 통한 금융 시장 고도화에 집중한다면, 우즈베키스탄은 은행, 제조, 통신, 토지를 망라한 전방위적 자산 이전을 통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에게 신규 시장 선점과 자산 가치 상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IB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민영화법 (2024.05 시행)

제정 목표	국가 경제 참여 축소, 투자 환경의 근본적 개선 및 민영화 절차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주요 내용	민영화 대상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함: 국유 부동산·지분, 단일 국영 기업·국가 기관• 제외: 토지(비농업용지 제외), 주거용 주택, 문화유산 등
	민영화 방식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경매를 넘어 총 8가지 달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민영화 방식을 법제화 (경쟁입찰, 공개협상, 임대 후 매각, 자본금 출자 등)
	투자자 보호의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동등한 투자 참여기회 제공• 민영화 과정에서 취득한 재산권에 대한 보호 명문화 등

출처: 카자흐스탄 민영화법, PwC Analysis

나가며

중양아시아 금융 시장 진출의 핵심은 섹터별로 시장 성숙도와 경쟁 강도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된 '이원화된 접근법'에 있습니다.

현지 금융사가 이미 시장을 선점한 은행과 MFO 부문에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한국식 금융 서비스 품질과 콘텐츠, 높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조달 구조 설계를 바탕으로 단기간 내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은행은 대안적 신용평가 및 정책금융을 통해, MFO는 오토론 시장 내 제조·딜러사와 협업 구조를 구축하고 조달 원가 절감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보험과 증권 부문은 현지 규제 변화와 자본시장 성장 속도에 발맞춘 인내심 있는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섹터별 차별화된 전략이 한국 금융기관의 자본력 및 디지털 역량과 결합될 때, 한국 금융사가 현지의 경쟁 구조에 균열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유라시아 금융 영토에서 경쟁력 있는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ntacts

문홍기 Partner

hong-ki.moon@pwc.com

02-709-0394

김창래 Partner

chang-rae.kim@pwc.com

02-3781-1412

송영호 Partner

youngho.song@pwc.com

02-709-8423

김범철 Partner

bumchul.kim@pwc.com

02-709-6462



S/N: 2604C-RP-063

© 2026 PwC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